

제5호

발행일: 서기 2012년 3월 8일(목)
창간일: 서기 2010년 3월 1일
구독신청: (043) 218-2158
FAX: (043) 212-2158
H. P: 016-482-3158

安東金氏 按廉使公派宗會報

발행인: 김 태 문
편집인: 김 재 성
발행처: 안동김씨안렴사공파종회
충북 청원군 오창읍 창리 2-3
인쇄인: 김 성 회

인사말씀



안렴사공파종회장 김 태 문

존경하는 종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해에는 장기간의 장미와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금년 임진쌍용제(壬辰雙龍祭)의

해를 맞이하여 새해 새꿈 새희망으로 새출발하면서 승천하는 용처럼 하시는 사업에 상승의 기운이 가득하시고 소원성취 시켜주는 용의 여의주가 무슨 가득 빛을 밝히는 한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지난 한해를 돌아켜 보면 큰 행사인 6월 18일 수도권종회장 태문씨의 공적비 제막과 7월 20일 김태동부친 정목씨 독립유공자 공적비 제막, 8월 28일 안렴사공 十世孫 민숙공(諱 顯)비문 제막식에 수고하신 윤왕 친회씨, 기타 대소행사를 준비하신 당사자분들의 노고에 대해 감

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도 제22차정기총회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대종회 회장 봉희님도 참석하시어 총련공 탄신 800주년 행사와 전자족보에 대하여 말씀 하였고 또한 정간공(諱 永徽) 위선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종인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정간공 할아버님은 안렴사공의 조부님이십니다. 금년에는 위선사업을 마무리 할 예정이오니 자금관계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십시일반으로 성금을 보내주시고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련공 탄신 800주년 행사 고유제는 4월 28일 오후 5시 영정각에서 진행되고 기념식행사는 다음날인 4월 29일 이오니 성금과 함께 행사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끝으로 종인 각 가정에 행운과 다복하시고 건강하시며 민사행통 하는 한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2012년 3월 일
安東金氏 按廉使公派宗會
會長 金 泰 文

정간공 위선사업 성금접수 계좌번호
새마을금고 4609-09-000555-5
예금주: 안동김씨정간공종회

안렴사공파 2011년 향사봉행

지난해 10월 31일, (음10월5일) 충북 청원군 오창읍 안렴사공 묘역에서 안렴사공 할아버님(정간공 諱 永徽), 아버지(영삼사공, 諱 薰) 안렴사공(諱 士廉) 향사가 150여명의 후손이 참석한 가운데 엄숙히 봉행(분정은 별표 참조)되었다. 먼저 정간공단소와 영삼사공단소에서 향사를 올린후 안렴사공 할아버님 묘소에서 향사를 올

린 다음 묘장에서 향사에 참석한 종친중 원로 및 중요 종친, 회직을 갖춘 종친을 소개하고 정간공종회 용주 봉부의 사회로 정간공 위선사업에 대한 개요 설명과 그동안의 추진 경과 보고 및 앞으로의 추진사항을 논의하였고 필요한 자금 모금에 협조 할 사항등을 논의하였다. 이날 오후에는 소윤공(諱 濬), 지주사공(諱 遇周), 양성

공(諱 吹)의 향사를 올렸다. 특히 소윤공 향사시에는 소윤공의 형님되시는 안렴사공(諱 侃), 정랑공(諱 潯)두분의 향사도 같이 올렸는데 소윤공의 네분 형님 중 안렴사공 만이



인 안렴사공, 3남 정랑공은 후손이 없어 소윤공계에서 향사를 모시

고 둘째인 仁庇 선조는 출가하였고 4남이신 절도사(諱 濬)선조님도 후사가 없어 외손인 전의이씨에서 외손봉사하고 있다.

구분	초현관	아현관	종현관	집례	대축	알자	진설
정 간 공	영 만 (전회장)	봉 희 (대종회장)	일성(서울)	선회(청주)	성희(부여)	용두(괴산)	재두(묘하)
영삼사공	선 회 (익파종회장)	종 목 (권사공종회장)	두희(서울)	선회(청주)	성희(부여)	용두(괴산)	재신(묘하)
안렴사공	태 문 (파종회장)	재홍(종평)	형남(서울)	선회(청주)	성희(부여)	용두(괴산)	윤회(묘하)

안렴사공파 2012년 정기총회 개최



2월 17일 충북 청원군 오창읍 오창새마을금고 회의실에서 안렴사공파 2012년 정기 총회가 80여명의

종친이 참석하 가운데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는 오창은 물론 서울, 전의, 청주, 증평, 괴산, 영동 등 각

지에서 종인들이 참석하였다. 회의는 재성 사무국장의 사회로 국민회의, 인사소개, 공로패증정, 회장인사, 대종회장의 축사, 전년도 회계결산 심의, 금년도 예산(안) 승인, 안건토의 순서로 이어졌다. 태문회장은 인사소개후 영만 전파종회장에 파종회장 6년 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는 공로패를 증정하였고 인사말에서 파종회의 발전을 위하여 협심하여 주실 것을 주문하였다. 봉희 대종회장은 축사회에서 종친간의 화합단결과 총련공 800주년행사에 협조와 참여를 부탁하였다. 이어 결산 및 예산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고 정간공 위선사업 추진경과보고와

태문 대종회사무총장의 총련공탄신 800주년 행사와 대동보를 발간한다는 대종회 소식을 전하는 것으로 회의를 마쳤다.

총회찬조금

- 200,000 수도권 종회,
- 100,000 봉희(대종회장), 영만(진천),철회(안양), 태준,태선,태룡(청주), 영식(여주),
- 50,000 용주,태운(서울)
- 화환 : 대종회, 문영공종회, 신창공종회
- 기념품 : 태문파종회장

칠세칠충략전(七世七忠略傳) ②

안렴사공파에는 칠세칠충이 계시니 충렬공 휘 방경 안렴김씨 증시조, 문영공 휘 순, 정간공 휘 영후, 영삼사공 휘 천, 안렴사공 휘 사림, 소윤공 휘 악, 지주사공 휘 우주 일곱분은 고려 충신으로 전칠세칠충이며 화산군 휘 주, 민숙공 휘 언, 참판공 휘 세달, 예조참판공 휘 천주, 이조참판공 휘 천장, 장사랑공 휘 성추, 장사랑공 휘 성욱 일곱분은 조선조 충신으로 후칠세칠충이라 한다.

아래 내용은 고충지에 기록된 내용으로 여러번에 나누어 게재하고자 합니다. 고충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소 다르다 하더라도 수정하지 아니 하고 게재 합니다 (편집자)

三. 정간공 영후 약전(貞簡公永熙略傳)



정간공은 문영공의 네째 아들로 1292년(고려 충렬왕 18년)에 출생하였다.

이름은 영후(永熙)요 호는 온재(溫齋)이다. 충숙왕 때에 삼사우윤(三司右尹)이 되고 충혜왕 때에 시종공책(侍從功策)으로 추승보절 동덕익찬공신(推誠保節同德翼贊功臣)으로서 벽상삼중대광수사도첨의사사 좌정승 예문관 대제학 상주국 복창부원군(壁上三重大匡 守司徒食議司事 左政承 藝文館 大提學 上柱國 福昌府院君) 후에 상락후를 추가하다. 원조(元朝)에서 봉의대부(奉議大夫)정동(征東)행증서성(行狀書省)좌우사랑중(左右司郎中)을 제수 받았다. 1361년(공민왕 十年辛丑)오월십이일에

칠십세로 별세하였다. 시호를 정간(貞簡)이라 하고 충혜왕묘정(忠惠王廟庭)에 배향(配享)하였다. 1339년(忠肅王 8년)에 백형(伯兄) 문숙공(文肅公)과 더불어 조적(曹積)의 난을 평정하고 일등 훈공의 고서를 받았고 그 후 충혜왕이 원나라로 피집(被執)되었을 때 시종 백관이 달아나 숨었으니 공께서 홀로 종식(召襲)으로 왕을 호위하여 배행(陪行)하였다. 공의 성품이 엄숙하고 감의하고 겸중하며 친구가 궁핍(窮乏)한 사람이 있으면 꼭 도와주었다.

四. 부밀직사사 천의 약전(副密直司事天義略傳)



공께서는 봉익대부 행부밀직사사 상호군(奉議大夫副密直司事上護軍)이시고 원조(元朝)에서 승무랑 자승고경절(乘務郎 資乘車經點)을 선수(宣授)받았고 이조에서 보국승화대부 영삼사 상락군의 증직을 받았으니 익원공(翼元公)의 책공(策功)으로 추증(追贈)되었다.

五. 오은 안렴사공 약전(梧隱安廉公略傳)

오은공은 충렬공의 현손이시며 부밀직사사(副密直司事)의 둘째 아들로 1335년(고려 충숙왕 4년) 원나라 지원 원년 을해에 출생하였다. 자(字)는 공직(公直)이요 호는 오은(梧隱)이다. 고려 공민왕 때에 일찌이 등과하여 누천(累遷)하여 증서문하성 정담문학 문하시랑(政堂文學門下侍郎)으로 있

다가 고려말 공양왕 4년에 관직이 안렴사에 그치었다. 어려서부터 문학에 뜻을 가져 포은 정몽주 선생과 목은 예새 선생으로 더불어 자주 추측하는 친구로 여조 난정때 같이 직간 잘 하기로 유명하였다. 1392년(공양왕 4년) 이태조(이성계) 왕위에 오르기 직전 혁명 전초 작업으로 공과 조건(趙建)을 지방관직으로 보낼 때 공은 호서(충청도지방) 안렴사로 조건은 영남(경상도지방) 안렴사(도관찰출척사(都觀察察陟使)를 승격시키어 종2품으로 하고 경관(京官)이 겸임하던 자리를 종2품으로 품계를 고친 안렴사자리로 분전(分遣)되어 있을 때 이태조 등극하니 조건은 파천으로 돌아가 관악산중에 은퇴하고(일설은 머리를 깎고 지리산으로 들어가 종(僧)으로 평생을 마쳤다고도 한다) 오은공께서는 주북(州北) 오근촌에 은거하였다. 이태조가 화사간을 주면서 친서로 누차 부르니 공이 이르기를 열년도 지이비를 고치지 아니하거든 충신이 어찌 두 일금을 섬기리요 하고 마침내 도산으로 들어가 빈객을 받지 아니하고 드디어 자취를 감추고 자손에게 일러 왈 나는 고려왕조를 오래간 섬겨오던 신하로 나라를 볼줄지 못하였고 나라가 망함에도 따라 죽지 못하였으니 어찌 죽어서 저 지하에 가서 선왕과 선인들을 뵈오리요 나는 천하에 죄인이라 죽거든 심심산중에 묻고 봉분도 하지 말고 묘석도 세우지 말아서 평지와 같이 표적이 나지 아니하게 하여 누구의 묘지라고 지적함이 없도록하라 그리고 나의 자손으로 이미 여조에 벼슬한 사람은 나가서 거들 벼슬하지 말아서 절의를 잃은 사람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라고 유언을 하시었다. 별세한 뒤에 이태조가 죽음을 듣고 한숨을 짓고 울바른 일 이라고 일었다 한다. 자손이 유명에 따라 평장으로 하니 묘의 표리가 나지 아니하여 생전에는 거처를 모르게 하고 사후에도 그 장지를 모르게 하였다.

그후 선비들이 유명평릉(遺命平塚)四字(字)와 일편도산 만고수양(一片陶山 萬古首陽)



八字(字)를 시제로 삼아 글을 지어 그 충절을 찬양하고 그의 충절은 일월로 더불어 광명을 거두고 도산의 적은 언덕은 만고의 수양산과 가지런하다고 칭찬하여 수백세를 내려가도 씻겨지지 아니하여 길이 신하된 사람으로 하여금 감심이 있게 한것 이다. 그 고충대절이 백이숙제에 못지 않고 만고의 강상(剛常)을 세워서 양조(兩朝)의 절의를 볼줄게 한 공의 맹세한 말은 선비들이 숙연히 머리 숙일 것 이다. 여러 번 병화를 만



나 실전된 묘소를 공의 증손 양성공 휘(吹)의 실전된 묘소를 찾다가 도산자좌원(陶山子坐原)에서 나온 지석으로 공의 산소를 찾아 뒤에 또 실전 될까 염려되어 희미하게 산소의 표석에 지나지 못하는 봉분을 하여 두었다가 이씨조 선이 가고 파도기를 거쳐 한국정부가 공복하면서 개봉축하고 의구불(儀興物)도 세우고 신도비(神道碑)와 신도비각도 건립하였다. 이어서 충청북도 유도회 주체로 이미 철회되었던 송천서원을 청원군 오창면 양지리(銀杏亭)에 복설하고 년 1차 춘절에 제사를 지내고 있다.



안렴사공파종회 각종성금 입금계좌 안내

안렴사공파종회에 각종성금 창조금, 회보협찬금 납입 계좌를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좌번호: 새마을금고 9002-1239-7308-0
예금주: 김태문(안렴사공)

회보의 원고를 보내주시시오. 내용은 선조에 대한 것이면 더욱 좋고 일상생활과 관련된 어떠한 것이든 상관 없습니다 또한 협찬하실분 연락 주시면 성심껏도와 드리겠습니다.

편집위원: 재명, 재흥, 재성, 철희, 주희, 태영, 흥희, 태준

회보 원고접수

보낼곳: 안렴사공파종회
충북 청원군 오창읍 성리 2-3
TEL: (043) 218-2158
FAX: (043) 212-2158

금석문 연재 ①

통정대부(通政大夫) 전 문의현령(前文義縣令) 김지 묘갈명(金堤墓碣銘)¹⁾



▲현령공 묘(청원 오창 양지리) 전경

공의 이름은 지(公諱諱) 자는 차견이다(字次軒). 안동김씨(安東金氏)로 신라 경순왕의 후손이다(新羅敬順王之後). 경순왕 18세손(2) 방경(敬順十八世孫曰方慶)은 고려 현의증친(高麗僉議中贊)으로 상락공에 봉해졌으며(封上洛公) 훈업이 세상에 높았는데(勲業冠世) 공의 9대조이다(公之九代祖也). 증조(曾祖)는 사헌부 감찰 우주(司憲府監察諱周周). 조(祖)는 승문원 판교 환(承文院判校諱丸). 부(考)는 사헌부 감찰 증 통정대부 호조참의 증손(贈通政大夫戶曹參議行司憲府監察諱孫)이다. 모 광주김씨(光州金氏)는 용분시 위사 대호군 김희의 딸(龍脤侍衛司大護軍諱虛之女)이다.

공은 1455년에 태어나(公生景泰乙亥) 20세(1474년)에 사마시에 합격하였으나(二十中司馬試) 과거에는 여러 번 낙제하여 벼슬할 의욕을 잃었는데(後舉擧不第 絕仕意焉) 1494년(弘治甲寅) 천거로 공음 첨봉이 되어(以調補後參奉) 여러 번 올라 장흥고 봉사, 윤녕부 직장, 주부가 되었다(累遷歷長興奉事, 敦寧府直長, 主簿). 장예원 사령으로 올랐다가(遷掌務院司評) 의직으로 나가 영산3원감이 되었다(出爲靈山縣監). 상(上)을 당해 벼슬에서 물러났다가(屢去職 免喪後) 사헌부 감찰 당진(5) 현감 외영고 주부가 되었다(歷司憲府監察 諱韓華監 義盈監主簿). 사용원 판관에 올라(陞司憲院判官) 여러 번 옮겨 군자 재용 양감 관관, 충익 외빈 양부 도사가 되었다(屢轉軍資濟用兩監判官忠瑞義賓兩府都司). 최후로 문의현령이 되었다(最後 拜文義縣令).

1521년(正德辛巳) 벼슬에서 물러나(以事罷) 청주 오근촌(7)에 퇴거하여

한거한 것이 14년이였다(退居于濟州之吾根村 閱十四載). 1534년(嘉靖甲午) 공의 나이 80세에 되어(公年八十) 국가에서 양노은명으로 추천하여(國家推養老恩命) 통정대부 당상관에 올랐다(陞通政堂上官階). 그해 9월(是年九月壬申) 병으로 별세하였다(以疾卒). 이듬해 2월(明年二月) 살던 동리 북원 서북원에 장사지냈다(窆于居里寓西北原).

공은 성품이 관화정경하였고(公寬和醇儉) 고을을 다스릴 때는(治邑) 백성을 무휼하기에 힘썼으며(務恤民隱) 집안에서는(家內) 항상 효제로써 자손을 가르쳤고(常以孝梯訓子孫) 사람을 관용하지 않는 과실을 마워하여(性疾惡 不能容人之過) 반드시 면책하였으며(必面責之) 종족에도 돈독하여(篤於睦族) 한가하면 문독 친척들을 모아 노소가 다 모이면 술을 나누고 환락했던 것이다(閑日會族 輯親戚屬酒 少長咸集 歡而罷). 호학하여 덕행하며 수고하고 강녕하여(好學苦節 壽考康寧) 공경도 높았으며 후손에게 경사가 내렸다(品賢尚順 慶延於後).

아들 공여가 급제하여 벼슬이 높았으며(子公壽登第官貴) 봉양을 극진히 하니(養備至) 항상 사람들의 흠모하는 바가 되었다(爲鄉黨所欽慕). 세상에서 복을 누리는 자로서(世之享福如公者) 공과 같은 이가 많이나 되리오(寧有幾人哉).

부인 류씨는(夫人柳氏) 전주 명족으로(晉州望族) 천지중추부사 류숙의 딸인데(俞知中樞府事諱塾之女) 공보다 3세가 적었다(少公三歲). 공과 해로하여 나이가 많았지만(與公偕老 享遐壽) 기력이 항상 강대하여(氣尚康泰) 공의 상사에 예를 다했으니(能守公喪盡禮) 또한 세상에 드문 일이다(亦世間所希有).

4남 1녀를 낳았는데(生四男一女) 장남 공겸은(長公僉) 충무위 부사직으로 먼저 죽었다(忠武衛副司直 先逝). 공여는(次郎公壽) 승정원 동부승지(承政院同副承旨) 공언은(次公彦8) 동부참봉(東部參奉) 공언(次公衍)은 장사랑(將仕郎)이다. 딸은 선부랑 김증수

9)에게 시집갔다(女適宣務郎金增壽).

공은 나의 선친과(公與我先人10) 연배로서 우의도 두터웠으니(年契義重) 응당히 세대가 돈독해야만 할 것이나(世好應篤) 나 안국(11)은 어려서 아버지를 잃고 가세도 영락해졌고(而安國孤零丁) 벼슬길에 나가서도(及出仕途) 또한 어긋나서(亦多違阻) 마침내 공의 가문에 찾아뵈고(竟不及拜公之門) 통가자제의 예의도 닦지 못한 것이(以修通家子弟之禮) 항상 한이었는데(常以爲恨) 이번에 승지군이 부탁하는데(今因承旨君之請) 졸문이라고 해서 사양할 수가 없으므로(不可以文拙辭) 행장에 의해서(謹次來狀) 대강 비문을 지었으니(略敘刻文) 이것으로 태만한 죄를 사

할까 하나이다(庶以補其愆罪).

명하기를(銘曰). 무엇이 복의 기본이나 8천 덕을 많이 쌓음이며(孰爲福基 積德之厚) 무엇이 복의 으뜸이나 하면 80세로 장수함이며(孰爲福首 八十之壽) 벼슬 비록 높지 못했어도 영광은 후에 나타나니(位雖未充 榮又發後) 하늘의 보답은 영원히 밝으리라(天報不忒 昭告永久) 「청주 주희 제공」



▲현령공 묘 후경. 맞은편에 2남 공여와 자손 묘역이 있다.

자랑스런 안렴사공 후에

조세심판원장 낙회(樂會)종친



낙회 종친이 국무총리 소속 조세심판원장 발령을 받았다. 종친은 충북 증평군 증평을 미암리에서 김재선 종친의 2남녀중 장남으로 태어나 청주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한양대학교 행정학과와 영국 버밍엄대에서 수학하고 경원대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제27회 행정고등고시에 합격하여 복대구,청주

세무서과장 재무부 세제실, 재정경제부 세제실 소득세과 재산세과 법인세과를 거쳐 국민경제자문위원의 사무처 기획조정실 정책조사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산하 재정위원회(CFA) 비상임 이사로 근무하였고 이번에 조세심판원장으로 임명된 것이다. 종친의 주요 업적으로 간이과세제도 도입, 근로장려세제(EITC)도입, 각종 조세조약협상과 성실신고확인제도 등이 있다.

종친이 태어난 미암리는 좌랑공계 집성촌이다. 「증평 제명 제공」

태우종친 통일연구원장에...



지난해 8월 8일 안렴사공파 태우(1950년생) 종친이 통일연구원 장으로 취임하였다. 태우 종친은 대구(원적은 충북 영동)에서父 봉준(보명 원회)의 4남 1녀중 3남으로 영남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외국어 대학교 봉암대학원을 졸업하였으며 미국 뉴욕주립대학 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 학위를 취득한 핵 전문가이며 그 동안 전경련 과장, 금성사 부장 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 국회북핵특별위원회의 위원, 국

무총리실 정부업무평가위원으로 일하다 지난해 초부터 해방대, 공군정책자문위원과 해군발전자문위원을 겸하고 있다. 가 이번에 통일연구원장으로 취임하였다. 주요 저서로는 【북핵 감시기인가 암인가(2006)】, 【북핵위협 대응 한국의 군사안보 전략】을 비롯하여 국가 안보에 관한 논문 600여편을 발표한 바 있다. 태우 종친은 좌랑공계 후손으로 부친은 소방서장, 대구시의회 운영위원장을 역임하였고 안동김씨대구종친회장을 맡아 종친회 발전에도 기여한 가문이다. 「안양 철회 제공」

태운 종친 국민포장 받아...



지난해 10월 25일 충북 청원군 오창읍에 거주하는 태운 종친이 국민포장을 받았다. 종친은 현 거주지에서 태어나 오직 농사에만 종사하였고 어려운 여건속에도 조금이라도 지속하는데 힘

을 기울여 이번에 국가로부터 건전소비 및 저축증대를 통한 국가경제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공이 인정되어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국민포장을 받은 것이다. 종친은 안렴사공파 선창공후손으로 종사에도 많은 협조를 하신등 보람적인 생활을 하고있다. 「신창공종회 태열 제공」

1) 1534년 통정대부 김지 묘갈명지 2남 김공여의 부박으로 묘갈명지 2남 김공여(1465-1537)는 가문(안렴사공파)의 한 사람으로 5행(서무위) 국태형으로 부임하는 1502을 전후하는 공을 본 밑에서 1505년(세종27-1521) 1505(1494-1507) 형제, 김지(1469-1505), 조공(1462-1505), 김지(1465-1505), 박성(1474-1505), 성지(1474-1505), 성사(1474-1505), 김지(1465-1505), 박성(1474-1505) 등 8형제 있었다.

2) 김지(1465-1505)의 4남 김지(1465-1505)는 가문(안렴사공파)의 한 사람으로 5행(서무위) 국태형으로 부임하는 1502을 전후하는 공을 본 밑에서 1505년(세종27-1521) 1505(1494-1507) 형제, 김지(1469-1505), 조공(1462-1505), 김지(1465-1505), 박성(1474-1505), 성지(1474-1505), 성사(1474-1505), 김지(1465-1505), 박성(1474-1505) 등 8형제 있었다.

3) 김지(1465-1505)의 4남 김지(1465-1505)는 가문(안렴사공파)의 한 사람으로 5행(서무위) 국태형으로 부임하는 1502을 전후하는 공을 본 밑에서 1505년(세종27-1521) 1505(1494-1507) 형제, 김지(1469-1505), 조공(1462-1505), 김지(1465-1505), 박성(1474-1505), 성지(1474-1505), 성사(1474-1505), 김지(1465-1505), 박성(1474-1505) 등 8형제 있었다.

4) 김지(1465-1505)의 4남 김지(1465-1505)는 가문(안렴사공파)의 한 사람으로 5행(서무위) 국태형으로 부임하는 1502을 전후하는 공을 본 밑에서 1505년(세종27-1521) 1505(1494-1507) 형제, 김지(1469-1505), 조공(1462-1505), 김지(1465-1505), 박성(1474-1505), 성지(1474-1505), 성사(1474-1505), 김지(1465-1505), 박성(1474-1505) 등 8형제 있었다.

5) 김지(1465-1505)의 4남 김지(1465-1505)는 가문(안렴사공파)의 한 사람으로 5행(서무위) 국태형으로 부임하는 1502을 전후하는 공을 본 밑에서 1505년(세종27-1521) 1505(1494-1507) 형제, 김지(1469-1505), 조공(1462-1505), 김지(1465-1505), 박성(1474-1505), 성지(1474-1505), 성사(1474-1505), 김지(1465-1505), 박성(1474-1505) 등 8형제 있었다.

6) 김지(1465-1505)의 4남 김지(1465-1505)는 가문(안렴사공파)의 한 사람으로 5행(서무위) 국태형으로 부임하는 1502을 전후하는 공을 본 밑에서 1505년(세종27-1521) 1505(1494-1507) 형제, 김지(1469-1505), 조공(1462-1505), 김지(1465-1505), 박성(1474-1505), 성지(1474-1505), 성사(1474-1505), 김지(1465-1505), 박성(1474-1505) 등 8형제 있었다.

7) 김지(1465-1505)의 4남 김지(1465-1505)는 가문(안렴사공파)의 한 사람으로 5행(서무위) 국태형으로 부임하는 1502을 전후하는 공을 본 밑에서 1505년(세종27-1521) 1505(1494-1507) 형제, 김지(1469-1505), 조공(1462-1505), 김지(1465-1505), 박성(1474-1505), 성지(1474-1505), 성사(1474-1505), 김지(1465-1505), 박성(1474-1505) 등 8형제 있었다.

8) 김지(1465-1505)의 4남 김지(1465-1505)는 가문(안렴사공파)의 한 사람으로 5행(서무위) 국태형으로 부임하는 1502을 전후하는 공을 본 밑에서 1505년(세종27-1521) 1505(1494-1507) 형제, 김지(1469-1505), 조공(1462-1505), 김지(1465-1505), 박성(1474-1505), 성지(1474-1505), 성사(1474-1505), 김지(1465-1505), 박성(1474-1505) 등 8형제 있었다.

9) 김지(1465-1505)의 4남 김지(1465-1505)는 가문(안렴사공파)의 한 사람으로 5행(서무위) 국태형으로 부임하는 1502을 전후하는 공을 본 밑에서 1505년(세종27-1521) 1505(1494-1507) 형제, 김지(1469-1505), 조공(1462-1505), 김지(1465-1505), 박성(1474-1505), 성지(1474-1505), 성사(1474-1505), 김지(1465-1505), 박성(1474-1505) 등 8형제 있었다.

10) 김지(1465-1505)의 4남 김지(1465-1505)는 가문(안렴사공파)의 한 사람으로 5행(서무위) 국태형으로 부임하는 1502을 전후하는 공을 본 밑에서 1505년(세종27-1521) 1505(1494-1507) 형제, 김지(1469-1505), 조공(1462-1505), 김지(1465-1505), 박성(1474-1505), 성지(1474-1505), 성사(1474-1505), 김지(1465-1505), 박성(1474-1505) 등 8형제 있었다.

11) 김지(1465-1505)의 4남 김지(1465-1505)는 가문(안렴사공파)의 한 사람으로 5행(서무위) 국태형으로 부임하는 1502을 전후하는 공을 본 밑에서 1505년(세종27-1521) 1505(1494-1507) 형제, 김지(1469-1505), 조공(1462-1505), 김지(1465-1505), 박성(1474-1505), 성지(1474-1505), 성사(1474-1505), 김지(1465-1505), 박성(1474-1505) 등 8형제 있었다.

세거지 소개 ①

광터골 (廣基)

광기(충남 천안시 병천면 도원리)는 안림사공파 현령공의 3남 참봉공(諱 公壽)의 자손이 세거하고 있는 곳이다. 천안시 병천면 가점리, 복다회리, 봉향리와 동면 구도리, 장송리, 죽계리에 걸쳐 제학공과 종친들의 세거지인데 반하여 이곳 도원리만이 안림사공파 자손이 세거하고 있다.

가. 마을의 유구한 역사

광기(廣基)마을의 유래는 대목지동에 간단히 표현되어 있으나 그 역사는 아마도 신라시대부터 인 것으로 추정된다. “광기”를 일반적으로 부르는 명칭은 “광터골”이며 한글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광기의 어두운 자 표기가 “광터”라 하며 마을의 어느 곳을 파던지 옛날 기와 또는 토기 파편이 나오고 동성산등 인근산에 토성의 흔적이 뚜렷하며 제가 어렸을 때 주변산에서 출토된 빗살무늬토기를 많이 보고 가지고 놀던 기억이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마을의 역사는 매우 오래된 것으로 추정된다.



▲종택내 사당

해방이후 60년대 초까지 초등학교와 사회과 지리과목의 대한민국 지도에 병천은 표기되지 아니하고 광기리로 표시되어 있던 점과 지금 병천면 소재지인 병천리 앞을 흐르는 하천의 명칭은 발원지인 봉향리부터 미호천과 합류 지점인 충북 청원군 옥산까지의 공식 명칭이 광기천임을 미루어 본다면 과거 어느 시점까지 병천지구의 대표 지명이 아니었나고 생각된다.

나. 입향조와 그 후손들의 분파 거주 현황

입향조이신 참봉공의 배위는 선



▲노은정

산유사이며 현재까지 선산유사이며 남의 친정부모님은 참봉공 후손들이 외손 봉사하고 있고 참봉공께서는 4남을 두셨는데 장남(諱 廣)의 후손은 현재 광기에 거주하고 있으나 그 가구수가 전국에 몇십 가구에 불과한 실정이며 차남(諱 廣)의 자손은 강원도 삼척에 살고 있고 3남 군자감(諱 鑑)의 자손은 같은 도원리의 광기, 가정, 덕신3개부락에 60년대에 70여가구가 살면서 참봉공에 관한 종사를 모두 담당하며 참봉공 계의 중심을 이루고 있고 4남(諱 熙)의 자손은 충북 괴산 연풍에서 거주하다 영동군 양강면지구에 세거하고 있다.

다. 종택과 유적

참봉공 종택은 광기마을 입구에 있으며 대지1900여평에 안착해 제가 어릴때부터 한옥기와집이

고전이 보존되고
협동심이있고 종사에
노력하는 마을

있고 사랑채와 부속가는 초기에서 근래에 돌기와로 되었으며 안채 우측에 사랑채가 있으며 종택에는 참봉공의 15대 顯公(永植)이 살고 있다. 사랑채는 현재 顯公으로부터 4대의 위패가 모셔져 있다.

종택입구에는 노송이 한 그루있고 노송 밑에 “廣基” 두글자가 음각된 하마석이 있고 사랑채는 3미터 이상의 측대위에 세워져 있어 종모를 지킴한다. 또한 사랑채의 재목을 살펴보면 어디에선가 옮겨온 듯 여러곳에 흔적이 남았고 과거 어른들의 말씀에 종택의 여러 건물중에 가장 오래된 건물로서 앞산 밑에서 옮겨왔다는 설이 있으나 고증할 방법은 없다. 종택에서 마을 위쪽으로 200미터 지점에는 참봉공의 6대손 顯公 후손의 주택 앞에 수령 500여년의 우람한 향나무가 마을에 운치를 더 하고 여름철에는 시원한 그늘을 제공하여 준다. 이 향나무는 천안시 보호수로 지정되어 있다. 마을 뒤의 밤사이로

난 길을 따라 내려가면 광기천에 이르는데 이곳에 충청남도 문화재 531호인 노은정(老隱亭)이 광기천변 언덕위에 고즈넉히 서있고 주변의 풍경이 아름답다. 이 정자는 참봉공의 5대손 노은 김상기공(1630~1708)이 조선조 숙종때 지은

정자로 지을 당시의 원형이 변하지 아니하여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으며 내부에는 여러편의 시문이 판액으로 게시되어 있다.

라. 인물

산세가 수려한 이곳에서는 과거에 뚜렷한 인물이 없다 다만 입향조이신 참봉공의 3남이 군자감, 군자감의 아드님이 예빈시헌정이며 그 아드님이 무과급제후 도총부도사(증 훈련원정)이시다. 또한 지

수(諱 芝秀)는 문장에 뛰어나 목천지인 대목지 편찬에 참여하였고 갑인파보(甲寅波譜) 기사를 쓰고 편집시 문단공손(鉉觀)과 함께 계획하고 본인

은 불문 자(好烈) 집(好謙) 손(思驥) 족집(好善) 족손(思永)을 총종원하였고 종택은 항상 족보 관련 종인들로 보냈다고 한다. 을해보(乙亥譜) 발행당시 종약소로 쓰이던 서울 숭인동 사무실은 주연(周演 諱 在演)씨 소유로 종약소로 부상 대역하여 을해보 발행당시 많은 도움을주었고 또한 동생 재영(在榮)과 함께



▲향나무(천안시 보호수)

참여하였다고 한다. 안림사공 신도비 찬(撰)자인 남공철은 외손이다. 현대에는 여러 인물이 배출되었으나 태원, 홍식 전 안동김씨대종회장, 성회 대종회 전부회장, 관복 대종회 전사무총장이 이마을 출신이다.

마. 현재의 현황

현재 이마을은 어느 농촌과 같이 젊은 사람은 없고 노인들이 많은 형편이나 광기마을에서 낳아서 출향하였거나 현재 살고있는 30대에서 50대의 인원 40여명이 친목계를 조직하여 매년 추석, 설날 잔일에 모임을 하고 있고 홍사가 있을때에는 원근을 불문하고 장례에는 꼭 참석하여 일하는 등 그 활동상이 아름답다. 또한 매년 1회이상 마을 주민을 위하여 봉사(여행 또는 마을잔치)하며 마을회관 운영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있어 칭송을 받고 있다.

「태운 대종회 사무총장 제공」



▲청년회원들

2011년 찬조금

- 500,000 : 찬회(온양)
- 400,000 : 수도권총회
- 300,000 : 형남(서울)
- 200,000 : 대종회, 신탄진총회, 영만(진천), 태문(파주회장), 일성(서울), 두회(양평), 영식(여주),
- 100,000 : 문영공총회, 익원공파총회, 신창공총회, 소윤공총회, 판교공총회, 제학공파총회, 판서공총회, 봉회(대종회장), 철회(안양), 태영, 태운, 용주(서울), 태봉(인천), 태용(여주), 태준, 태선, 재만(청주), 재흥(중평)
- 50,000 : 청주총친회, 경회, 경일(서울), 용회(진천), 재필(운곡)